



제목	Byzantium and the Emergence of Muslim-Turkish Anatolia, ca. 1040-1130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Routledge
발행일	2017. 2. 17.
저자	Alexander Daniel Beihammer
출판도시	Abingdon
페이지수	450
ISBN 또는 ISSN	978-1138229594

내용 요약

『1040~1130년 경 비잔티움과 이슬람-터키 아나톨리아의 출현』은 11세기 초 아나톨리아와 비잔틴-이슬람 경계 지역에 대한 지배의 역학 관계를 설명하는 역사서이다. 아나톨리아 지역에 셀주크튀르크의 도래는 현대 터키의 민족적 정체성을 논할 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이와 반대로 서구 학자들은 유럽 민족의 형성이나 근동의 변형에 대해 논할 때 아나톨리아의 터키인을 거의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제까지 비잔틴의 소아시아에 튀르크인이 침입한 것은 주로 제국들의 갈등,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대립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저자 베이해머는 콘스탄티노플의 줄어드는 영향력과 셀주크의 초기 술탄들이 지도적인 힘으로 이를 대신하지 못한 것을 근거로 제국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 정치 엘리트와 전사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저자에 따르면, 비잔틴의 아나톨리아와 이슬람의 지역들에서 지역 엘리트와 지방의 권력자들은 끊임없이 정치 투쟁을 하면서 정치적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튀르크 전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급습과 정복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현존하는 사회 연결망에 녹아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행정적인 수단과 지역 자원을 이용하였고, 지역 엘리트와 지방의 권력자들, 그들의 신민들을 수용하였다. 저자의 결론은 비잔틴의 쇠퇴나 튀르크의 승리가 아니라 이들 두 제국의 상호작용이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책은 총 3부로 되어 있다. 1부는 '1040~1071년 경 비잔티움의 동부 진군에서 처음으로 만난 자들', 2부는 '1071~1096년 제국 권위의 쇠퇴와 권력의 지역화', 3부는 '1096~1130년 경 십자군과 이슬람 아나톨리아의 결정체'에 관해 설명하였다.